

전남어촌특화센터 장흥 김 종자업체 컨설팅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최근 김 종모 전문가 강성필 해조산업개발 대표(이학박사)와 함께 장흥군 김 종자업체 일명수산(대표 전진호)을 찾아 종묘 배양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제공>

바르게살기운동 광주시협 산불 피해 돕기 3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광주시협의회(회장 구제길) 임원 8명은 지난 12일 강원도 산불 재해 복구지원 성금 300만원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바르게살기운동 광주시협의회 제공>

'김홍빈과 희망만들기' 담양 추월산 친목 산행



(사)김홍빈과 희망만들기 회원들은 14일 담양 추월산 용마루 길에서 5차 산행을 함께하며 친목을 다졌다. 회원들은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2좌를 오른 김홍빈 대장의 도전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산악 및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홍빈과 희망만들기 제공>

정은성 호남대 교수 광주 산지관리위원회 위촉



호남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정은성 교수가 광주 시 산지관리위원회 관광, 경관, 도시계획 분야 위원으로 위촉됐다.

정 교수는 올해 4월부터 2년간 광주 시 관광휴양 시설 및 체육시설 등 보전산지에 대한 지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의 산지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해 심의를 수행하게 된다.

정 교수는 광주 시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전남도 관광 및 문화 분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 한국관광연구학회 전라지역 부회장, 한국이벤트컨벤션학회 편집위원 등을 수행하면서 관광 및 지역개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채희준 기자 chae@kwangju.co.kr>

“하나 돼 끈 강원 산불...폐허 속 싹튼 희망 봤죠”

강원도 산불 화재 진압 현장 다녀온 광주 소방대 136명

고성 현장 전쟁터 방불...소방관 집결 역대 최다 주먹밥 건네 준 주민·응원 보내준 국민 큰 힘 국가재난에 일원화된 대처 가능한 환경 됐으면



이승준 소방위

지난주 온 국민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강원도 산불은 인제·고성·속초·강릉·동해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1명을 숨지게 했고 주택과 건물 300여채가 불에 탔다. 전국 각지의 소방관들은 산불이 나자 즉각 강원도로 모여 힘을 보탤다.

광주시소방본부 역시 지난 5~6일 강원도 산불 현장에 소방관 136명과 소방차 19대를 파견했다. 북부소방서 문흥119 안전센터 소속 이승준(35·사진) 소방위는 이장신 소방경이 이끄는 2차 출동대로서 현장에 다녀왔다.

이 소방위는 5일 새벽 3시께 이병일·김명석·김기영 소방위, 전승욱·이경은 소방장, 조락현·김태영·김희호 소방교 등 8명과 함께 490km 달려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현장에 도착했다.

소방관으로 근무한 지 1년째 되는 그는 “그토록 처참한 화재 현장은 처음 봤다”며 그날을 기억했다.

“5일 새벽 2시 시정에 파견된 소방관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했고 바로 현장에 가는 차에 올랐어요. 강원도로 가는 내내 스마트폰으로 현장 상황을 확인했지만 실상 눈으로 직접 본 현장은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고성군에 진입해 시내 쪽 도로로 가보니 그야말로 전쟁터였죠. 주위에는 불 냄새가 코를 찌르고 도로 양옆의 건물은 전소된 상태였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많은 소방관들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이 소방위는 3교대로 일하며 용촌리의 600㎡ 땅을 돌아다니며 흙시 모를 불씨를 제거하는 작업을 펼쳤다.

“큰 불은 꺼졌지만 방대한 면적의 잔불 처리가 남아있었죠. 강원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진화가 됐다 하더라도 강한 바람이 불면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큼니다. 제가 활동한 용촌리는 주거지역이 인근 야산과 붙어있어서

더 각별히 주의해야 하죠.” 이 소방위를 포함한 광주 소방관들은 강원도 산불을 진화하는 동안 경동대 도서관에서 휴식을 취했다. 모든 소방관은 잠도 잊은 채 응급 상황에 대비 태세를 갖췄다. 이 소방위는 상심에 빠져 있을 주민들과 접촉하는 일이 가장 조심스러웠다고 한다.



광주시소방본부 136명은 지난 5~6일 강원도 산불 현장을 찾아 진화 작업에 힘을 보탤다. <광주시소방본부 제공>

“당시 가장 힘들었을 강원 주민들은 오히려 저희를 격려했고 도와주려 했어요. 손수 만든 주먹밥과 물을 나눠주고 한 50대 여성 주민은 소방관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줬어요. 주민들의 응원에 힘입어 밤 순찰도 거뜰히 해

낼 수 있었어요.” 이 소방위는 소방관의 국가적 전환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강원도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에는 일원화된 지휘와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마다 예산이 다르다 보니 시·도민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뺄듯함을 느낄 소방관들이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활동 분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어린 환자에 골수 기증한 '백의의 천사'

화순전남대병원 박선주 간호사

혈액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 환자를 위해 골수(조혈모세포)를 기증한 간호사가 있다.

화순전남대병원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근무 중인 박선주(31) 간호사. 박 간호사는 지난 2010년 화순전남대병원에서 근무하며 기증자 부족으로 힘겨워하거나 제 때 골수 이식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를 곁에서 보았다고 한다.

마음이 아팠던 박 간호사는 대한적십자회에 골수기증 희망자로 등록, 이후 조직적합항원(HLA)이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혈액암 진단을 받은 환자는 항암요법이나 가족간 또는 자가 이식의 순서로 치료를 모색하지만, 모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HLA

가 일치하는 조혈모세포 기증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골수내에 포함된 조혈모세포는 ‘혈액을 만드는 어머니 세포’라는 뜻으로 정상인 혈액의 약 1%에 해당한다.

박 간호사와 HLA가 일치하는 혈액암 환자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몇년이 흐른 뒤인, 2개월전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부터 HLA가 일치하는 어린 환자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박 간호사의 골수기증 의향은 변함없었다. 유전자 상세 검사와 건강검진 등을 거쳐 기증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골수 공여를 위한 몸 만들기 나선 박간호사는 최근 조혈모세포이식술을 받았다.

퇴원을 앞둔 박간호사에게 협회로부터 한



골수를 기증한 박선주 간호사(왼쪽에서 두번째)가 김광숙 간호부장 등 동료들과 함께 어린 환자의 감사편지를 읽고 있다.

통의 편지가 전해졌다. ‘재생불량성 빈혈’로 이 담겨있었다. 고통받다 골수를 기증받은 어린이의 감사글 <채희준 기자 chae@kwangju.co.kr>

환경부장관상 박주현·전남도지사상 김소영

중·고생 환경영어 스피치대회

(제)국제청소년교육재단(이사장 이강열)은 지난 13일 담양군청소년수련원(원장 박종철)에서 ‘제6회 전국 중·고교생 환경영어 스피치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서 박주현(호남삼육중 3년)양이 대상인 환경부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김소영(목포중앙여중 3년)양이 전라남도지

사상을, 장세환(광양고 1년)군과 반희정(해남제일중 3년)양이 전남도교육감상을 각각 수상했다. 최건(보성북내중 3년)군과 박정진(광주국제고 1년)양이 국제청소년교육재단 이사장상을, 황지혜(세종아름중 2년)양과 정주현(부산해사고 1년)군이 전남자연환경연수원장상을, 이상운(해남제일중 1년)군과 김명재(목포덕인고 2년)군이 담양군청소년수련원장상을, 김도희(곡성옥곡고 2년)양 등 7



명이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3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 ▲김은세·김순애씨 아들 아성군, 배현진(영광글로벌협동조합 이사장)·박경숙씨 딸 제향양=20일(토) 오전 11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그랜드힐스 호텔 2층 더채플홀 063-251-8000(신부측 피로연 12일(금) 오전 11시·오후 2시 영광 풍성한 집 061-356-0733)
▲이정철(늘기쁜교회 목사)·박영임씨 장남 권세군, 양해룡·정영희씨 장녀 헤민양=20일 오후 2시 광주시 북구 문흥동 까사두레 3층 안젤로를.
▲故 박재석·임옥진(장흥우체국)씨 아들 승아(전남도청)군, 홍정호(장흥교회 담임목사)·김미라씨 딸 아영(장흥축협)양=20일 오후 1시 장흥교회.
▲문영수(담양 문영수 법무사소장)씨 장남 종선(전남교육청)군, 박근식씨 딸 영주양 결혼식=21일(일) 낮 12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올리데이인 호텔 3층 로즈룸.
▲홍기남(전 광주도시공사 사장)·송인자씨 아들 석룡군, 고병만·이지연씨 딸 도희양=28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7층 그랜드홀 02-526-8600.

동창회

-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 38회·광주여상 26회) 졸업 30주년 기념 및 사은회=20일(토) 오후 5시 광주동성고 대강당 010-2607-1650.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총동문회 제23회 유은동문 한마음 대축제(광상 38회·여상 26회 주관)=21일(일) 오전 10시 광주여상고 잔디구장 062-361-2680.

종친회

-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지원장 이달우) 청년이화월례회(회장 이태웅)=16일(화) 오후 7시 지원회의실 062-225-5636.
▲경주배씨광주중친회 시조(문양공)할아버지 대제=18(목) 오전7시 광주 동부경찰서 뒤편 버스 출발(경주 경덕사 오전 11시 도착) 배경석 회장 010-8623-4949.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 지원 여성이화월례회(회장 이보희)=22일(일) 오전 11시 지원회의실.

알림

- ▲(사)광주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창립 1주년 원탁토론회=19일(금) 오후 2시~5시 서구 치평동 JS웨딩홀 1층.
▲일기정양리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요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응유·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동봉봉지사=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13세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
▲국가무형유산 각설이품바티어링구·옛가위춤 등 수강생(각설이·연희놀이 전수자 최원홍)=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

모집

- 수업(4월 개강), 광주 금남로 4가역 인근 파랑새소극장 010-3620-4341.
▲모다인패션디자인학원 국비지원·일반 교육생 모집=패션의류제작·양장기능사 자격증·패션디자인·패션일러스트레이션·패션CAD 062-234-5300.
▲광주불교문화대학대학원 신입생 모집=31일까지 모집, 대학(기초교리):매주 화요일 오후 2시~7시, 대학원(경전공부):매주 수요일 오후 2시~7시, (사)광주불교교육원 사무국 062-228-9098.

부음

- ▲권정표씨 별세, 익힌·영하·은희(바른미래당 최고위원·전 국회의원)·재희·윤씨 부친상, 조연씨 시부상, 황해섭·강신욱·우병영·강일규씨 장인상=발인 16일(화) 오전 9시 대구전문장례식장 특105호실 053-965-7105.
▲이재복(전 목포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씨 별세, 박성자씨 남편상, 상영(튼튼정형외과병원 원장)·상우(음악감독)씨 부친상, 서은형·안지은씨 시부상=발인 16일 오전 8시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신관 3층 특302호 故산상기 님(남/82세)
신관 4층 특402호 故송정자 님(여/91세)
신관 3층 특12호 故설애자 님(여/77세)
신관 2층 VIP예곡 故최길호 님(남/66세)
장례문화의 정당 그린장례식장 회장 김영관 24시 대기 062-250-4455 www.그린장례식장.co.kr